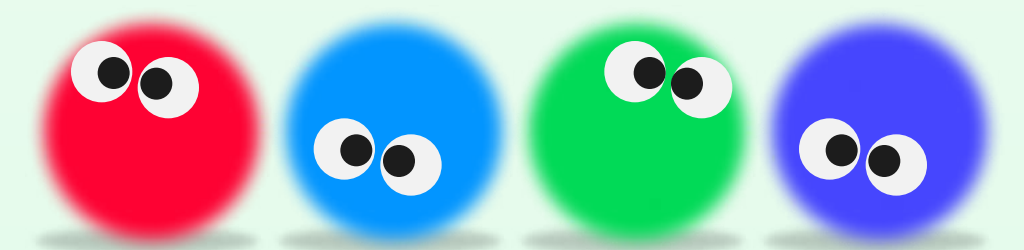


Melón

반응형 리뉴얼 프로젝트

문현희, 서연주, 이종훈, 황성주



CONTENTS

본 기획서는 4인 팀 프로젝트 결과물을 개인 포트폴리오 용도에 맞춰 재구성한 편집본입니다.

전체 프로젝트 중 본인 담당 파트인 '스포티파이(Spotify) 경쟁사 분석' 및 '공통 리뉴얼 전략'을 중심으로 수록하였습니다.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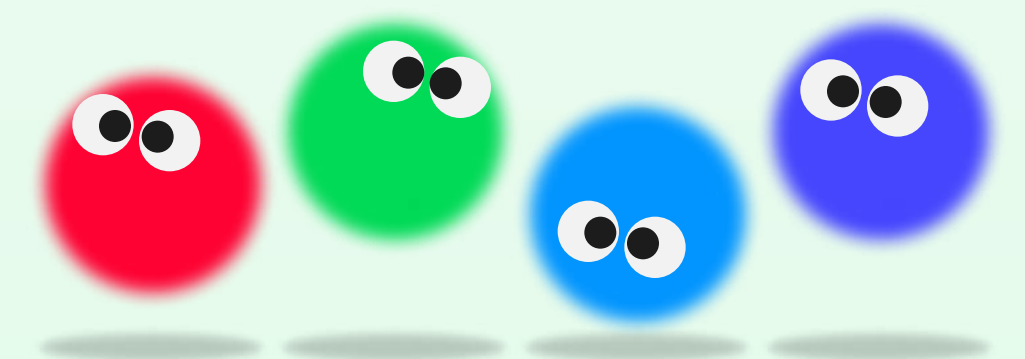
경쟁사 분석

- 유튜브뮤직
- 플로
- 지니
- 스포티파이
- 결론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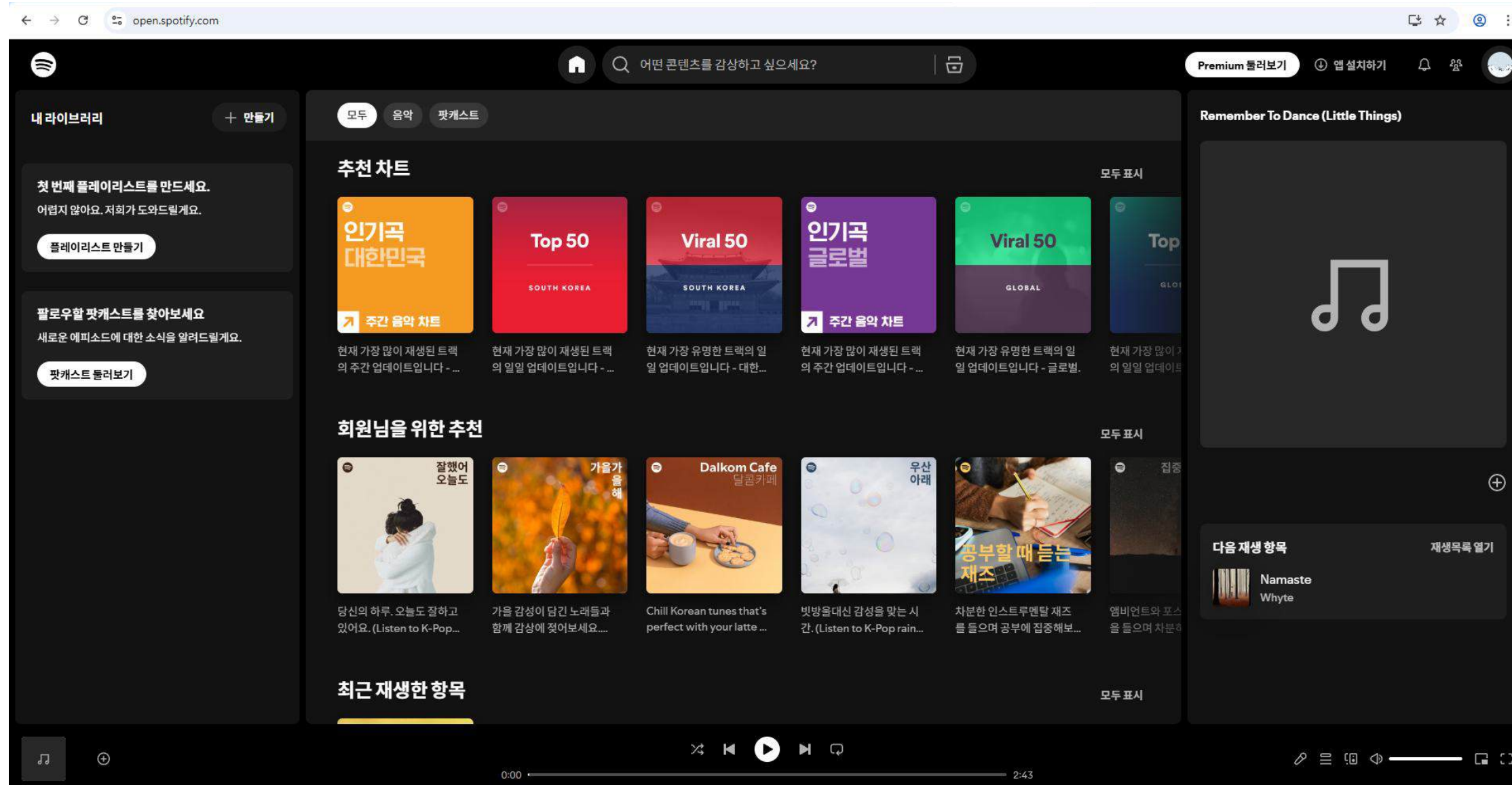
자사 리뉴얼 방향성

- 컨셉 및 디자인 방향성



경쟁사 분석 - 스포티파이

스포티파이 링크: <https://open.spotify.com/>



포인트 컬러

#1ED760

디자인 컨셉

#콘텐츠중심 #다크모드 #그리드레이아웃
행동 유도 버튼에만 포인트색을 사용

장점

1. 콘텐츠 집중 구조이다.
 - 배경이 어두워 음악 앨범 커버에 쉽게 집중할 수 있다.
2. 콘텐츠 레이아웃의 규칙성으로 인해 안정적이다.
 - 카드형 그리드 시스템으로 콘텐츠를 한번에 빠르게 훑어볼 수 있다.
3. 가시성이 좋다.
 - 흰색과 검은색의 대비, 굵은 폰트 등으로 한눈에 정보가 들어온다.

단점

1. 브랜드 컬러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기 어렵다.
 - 다크 모드의 보편화로 디자인적 차별화가 강하지는 않다. (넷플릭스, 유튜브 뮤직 등)
 - 행동 유도버튼에만 포인트색이 사용되는 것은 강조의 역할이 시들 수 있다.
2. 중요도 위계 구분 저하로 정보 탐색 피로도가 증가한다.
 - 색의 대비가 강한 것은 눈에 쉽게 들어오지만 동시에 피로도를 발생시켜 오래 보기 어렵다.
 - 첫 화면에 많은 콘텐츠가 집중되어 있어 시각적 복잡성이 높다.
 - 차트/목록/앨범이 다 같은 사이즈라 가장 주가 되는 메인 콘텐츠를 찾기 힘들다. (이는 집중도 하락과 콘텐츠 이탈 등의 행동이 발생할 수 있다.)

정보 구조 분석

정보구조 특징 요약

스포티파이의 정보구조는 전통적인 웹사이트의 깊이(메인메뉴-서브메뉴)보다는 가로로 넓게 펼쳐진 콘텐츠 탐색 구조이다.
정보 위계는 활동 영역 > 필터링 > 개별 콘텐츠의 순이다.



최상위 정보 공간

개인 환경설정, 검색

- 사이트 전체를 정의하는 가장 높은 위계의 기능
- 환경 설정과 모든 콘텐츠로 접근 가능한 탐색 도구를 제공

핵심 활동 영역

홈, 검색, 내 라이브러리

- 사용자가 사이트에서 주로 수행하는 활동 제공
- 사용자의 기록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활동하는 서비스

유틸리티 및 보조 기능

플레이어/액션 바, 콘텐츠 제작 액션, 계정 관리

- 콘텐츠 소비를 보조하거나 사용자 참여를 유도하는 기능
- 콘텐츠를 생성/재생/관리하는 서비스를 수행함.

세부 콘텐츠 분류

콘텐츠 유형 필터, 개인화 추천 목록, 장르/테마 탐색

- 핵심 활동 영역 안의 정보를 세분화하는 기준.
- 콘텐츠 유형, 테마, 목적 별로 분류하여 탐색을 돕는 서비스

장점 및 단점

• 장점

1. 개인화가 쉽다.

'홈', '검색', '내 라이브러리' 라는 핵심 활동 영역을 1단계(메인 구조)로 둬으로써, 사용자 개인의 이용 기록이나 현재 목적에 맞춰 정보를 즉시 변환할 수 있다.

2. 콘텐츠 발견에 용이하다.

필터링이 2단계 위계에 있어, 사용자가 정보를 세분화하고 발견하기 쉽다.

• 단점

1. 정보 위계가 모호하다.

콘텐츠 영역 자체(추천 목록, 차트 등)가 메뉴 역할을 겸하고 있어 위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

2. 전통적 콘텐츠 분류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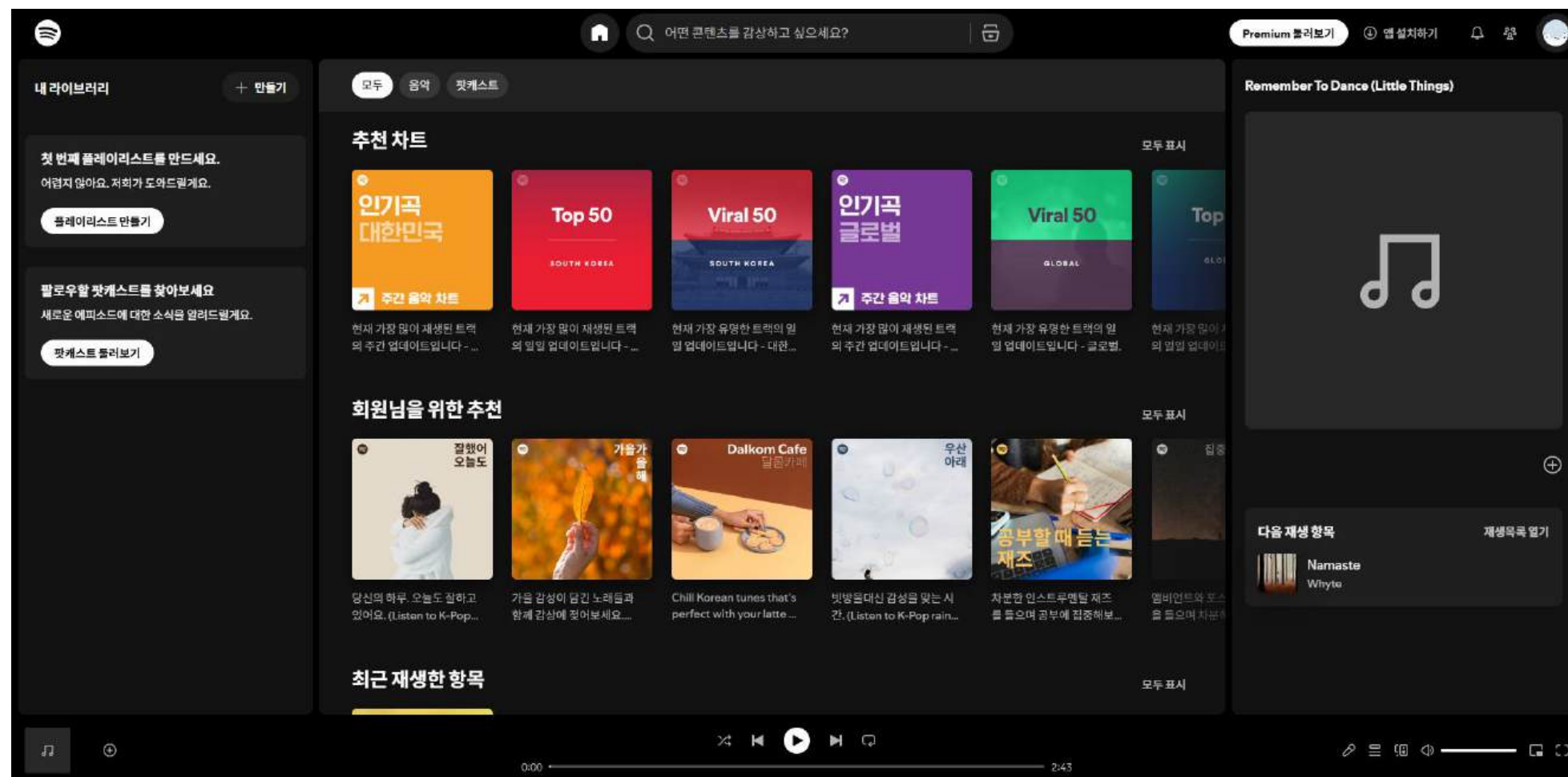
고정된 콘텐츠 성격을 기준으로 정보를 찾으려는 사용자에게 '검색' 영역에서 다시 필터링을 거치는 추가 단계가 필요할 수 있다. (일반적 웹 사이트를 사용하던 전통적 사용자에게는 불리함).

UI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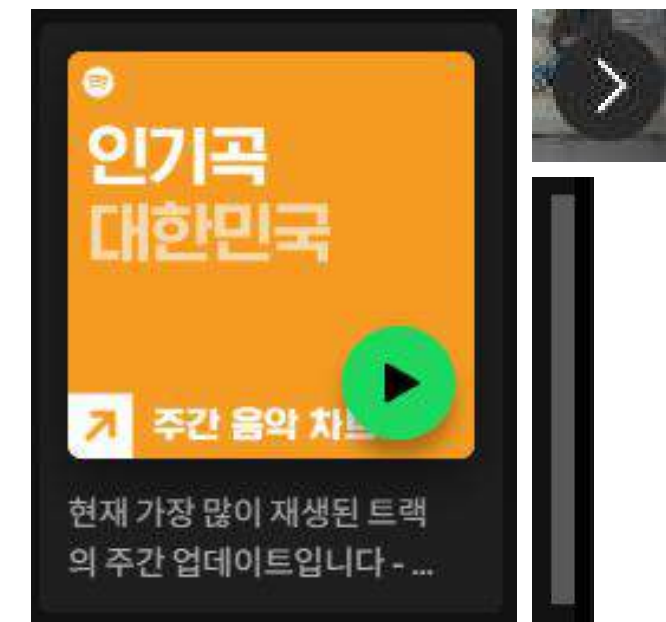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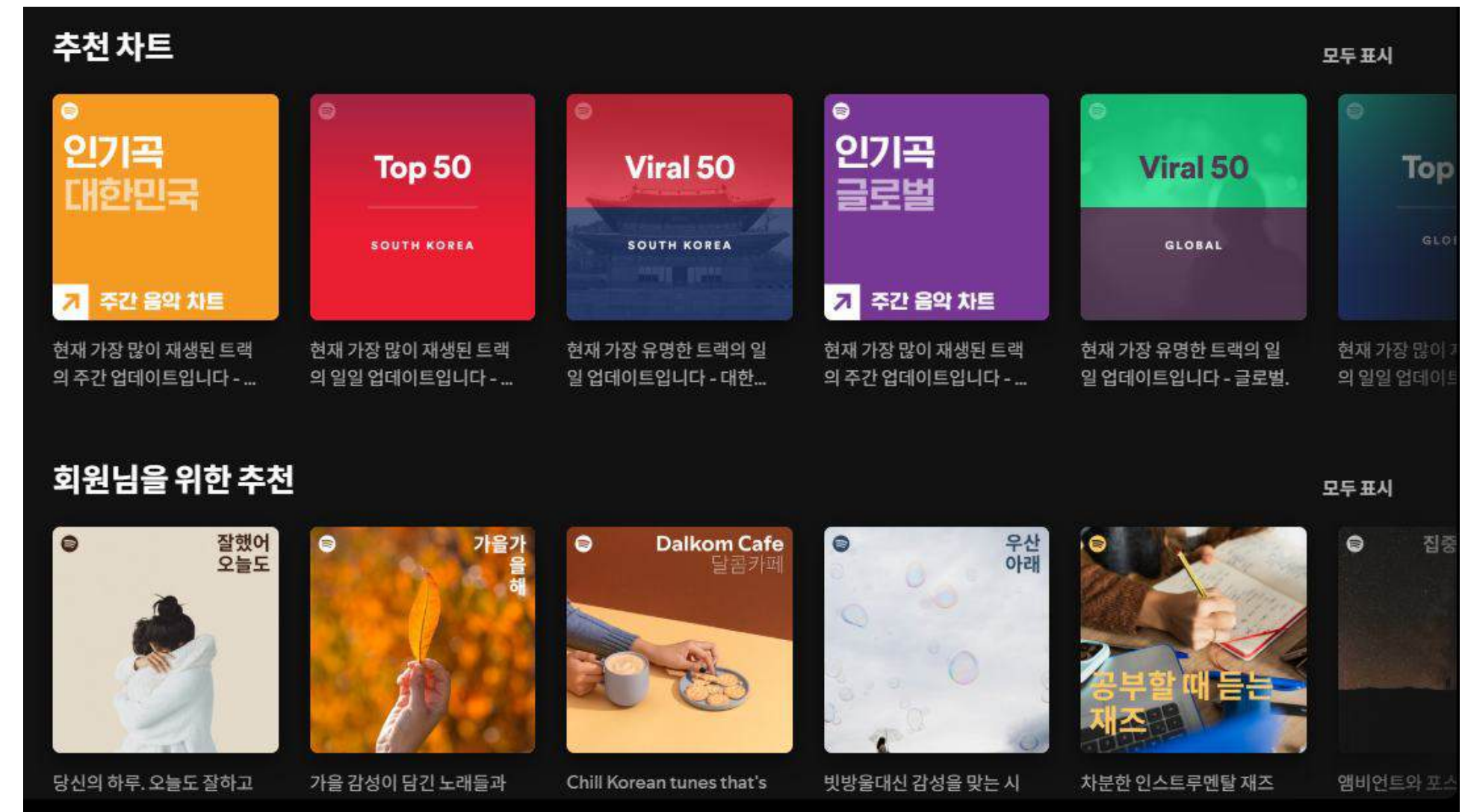
메인 화면

전체 레이아웃

헤더와 사이드 메뉴, 음악 재생 바는 유지된 채 메인 콘텐츠만 바뀌는 구조.
 사이드 메뉴를 접는 기능이 존재,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면 레이아웃이 변한다.



콘텐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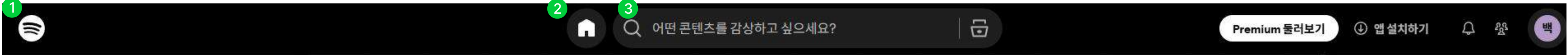


콘텐츠 UI

- 카드형 그리드 구조인 콘텐츠들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플레이 버튼과 사이드 버튼(옆 콘텐츠로 이동 버튼)이 뜬다.
 - 메인 콘텐츠에서 스크롤해서 내려가 있는 경우, 스크롤 바가 생성되는데 사이드나 헤더 등으로 마우스를 옮기면 스크롤 바가 사라진다. (마우스 오버 시 생성된다.)
- 사용자의 행위에 따라 UI가 생겼다 사라졌다를 반복하는 것은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돕는 UI의 역할을 하고 있다.

UI 분석

헤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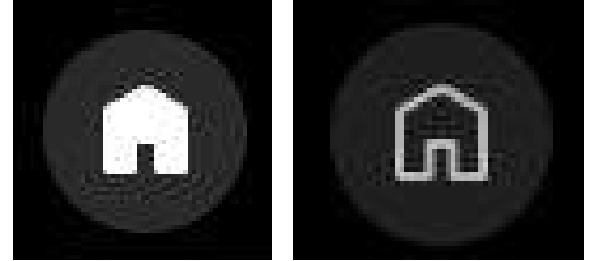
1



브랜드 아이콘(로고) 버튼

클릭 시 메인 페이지로 돌아가며, 같은 메인페이지의 카테고리나 필터를 사용중일 경우 해제된 기본 홈페이지 상태가 된다.
대부분의 웹사이트에서 브랜드 로고를 클릭하면 메인 페이지에 돌아가므로 사용자의 경험에 따르는 U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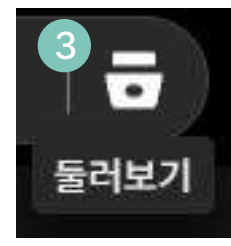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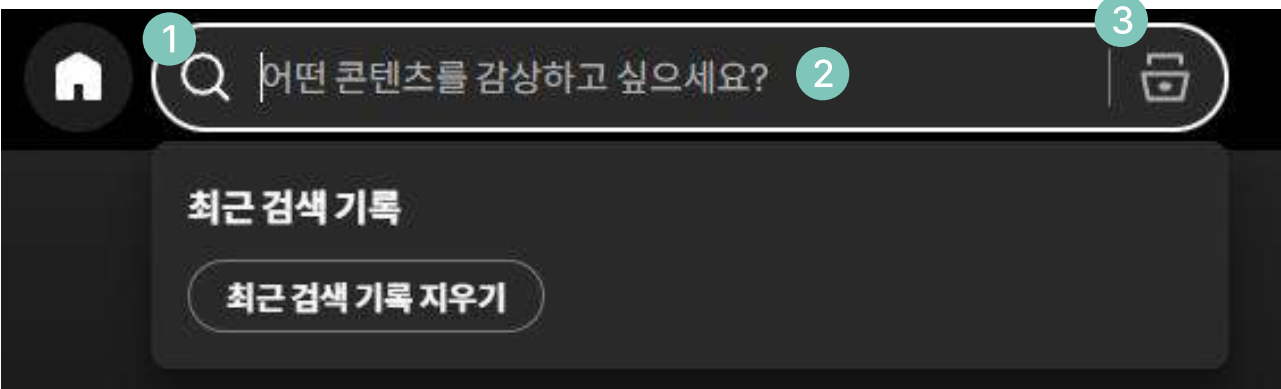
2



홈 버튼

클릭 시 메인 페이지로 돌아간다.
다른 페이지를 탐색 중일때는 테두리가 빈 아이콘을 사용해 현재 페이지가 홈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게 돕는다.
로고 버튼과는 다르게 메인 페이지에서 클릭해도 필터가 해제되진 않는다.
로고 버튼과 역할이 겹치는 부분이 많아 중복된다고 느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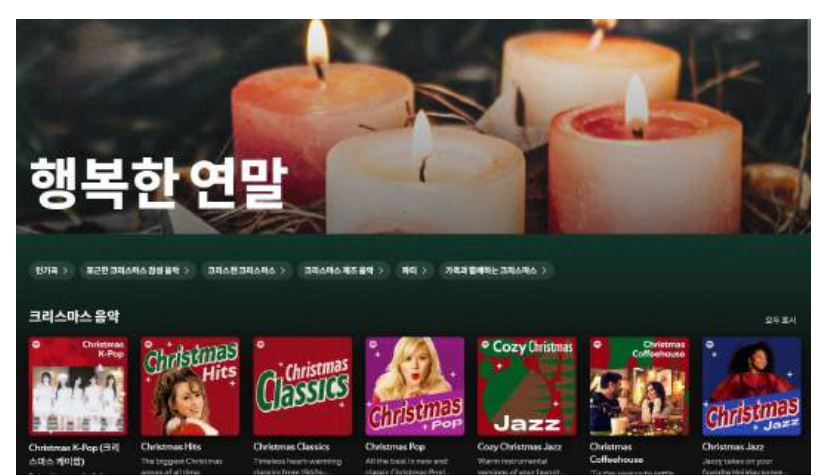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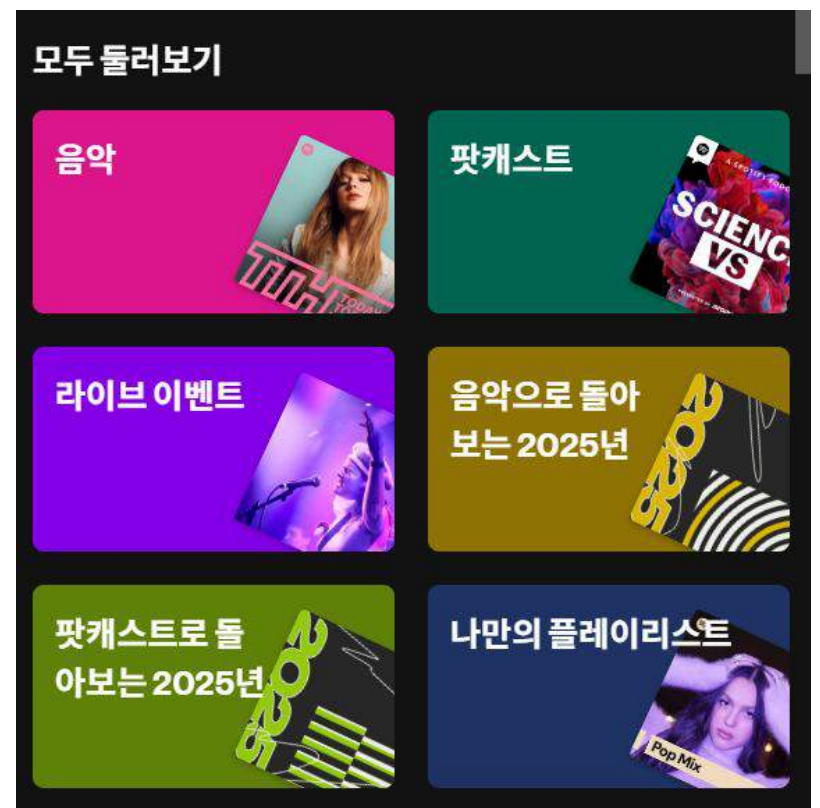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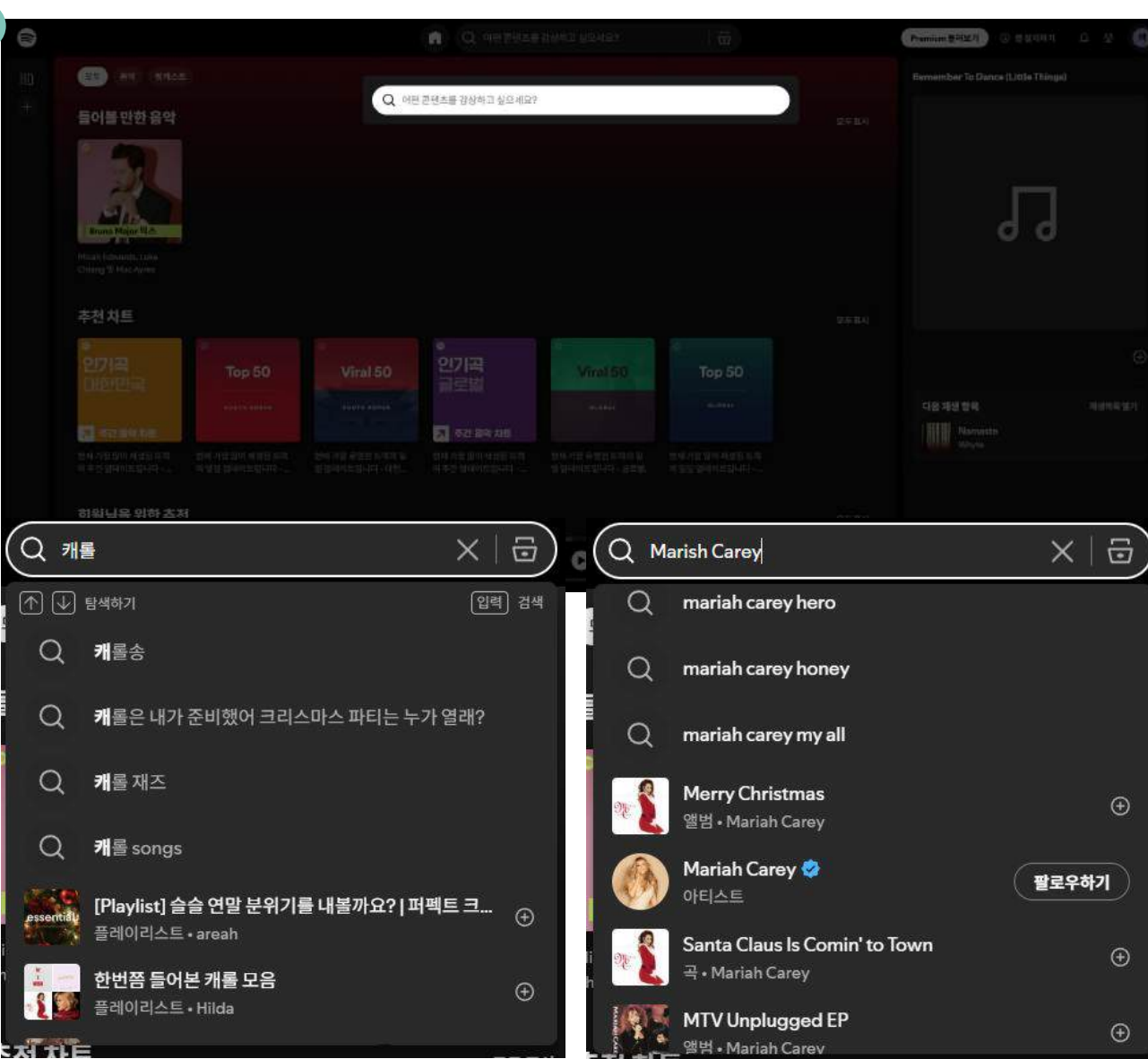
3



검색창

- ① 검색 버튼 / 검색창 클릭 두 가지 다 드롭다운으로 검색창이 뜬다.
마우스 오버 시 Ctrl + K 에 대한 안내 문구가 뜨는데, 안내에 따라 Ctrl + K를 입력할 시 검색창이 팝업으로 뜬다.
 - ② 검색 키워드 입력시 연관 검색어 - 플레이리스트 - 곡 - 앨범이 뜨며, 아티스트 이름을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 - 아티스트 채널 - 곡 - 앨범이 뜬다. (키워드가 아티스트와 관련된다면 채널명을 우선순위로 보여준다.)
 - ③ 마우스 오버 시 '둘러보기' 라는 안내 박스가 뜨며, 클릭하면 여러 테마 / 주제의 추천 목록이 뜬다.
- 기타: 검색창에 글자를 입력하면 되면 닫기(X) 버튼이 뜨며, 버튼을 누르면 입력하던 글자가 사라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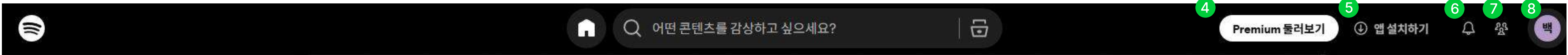
2



검색창에 연관 키워드를 보여주어 사용자의 검색 분야 확대를 의도하는 것이 좋다.
다만, 거의 서브 페이지에 가까운 둘러보기가 검색창 안에 있다는 점이 불편하다.
메인 페이지에 여러 테마 관련 곡이 많기에 메인 페이지의 버튼으로 사용하는 편이 좋았을 것 같다는 소감이 든다.

UI 분석

헤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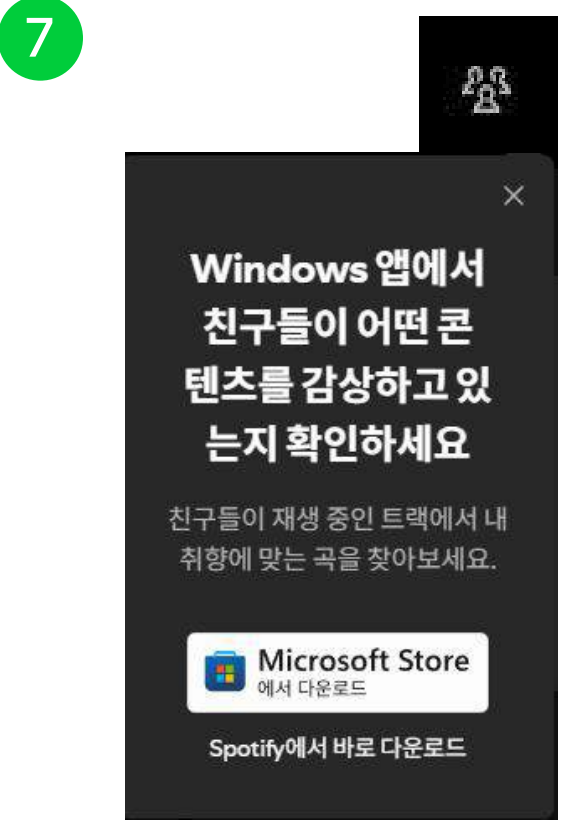


4 5 프리미엄 둘러보기 / 앱 설치하기
 각각 결제 페이지와 앱 설치 페이지로 넘어가는 버튼형 UI다. 둘 다 설명 페이지로 넘어간다. 후자는 컴퓨터 사용자에게 '마이크로 소프트웨어'를 통한 설치를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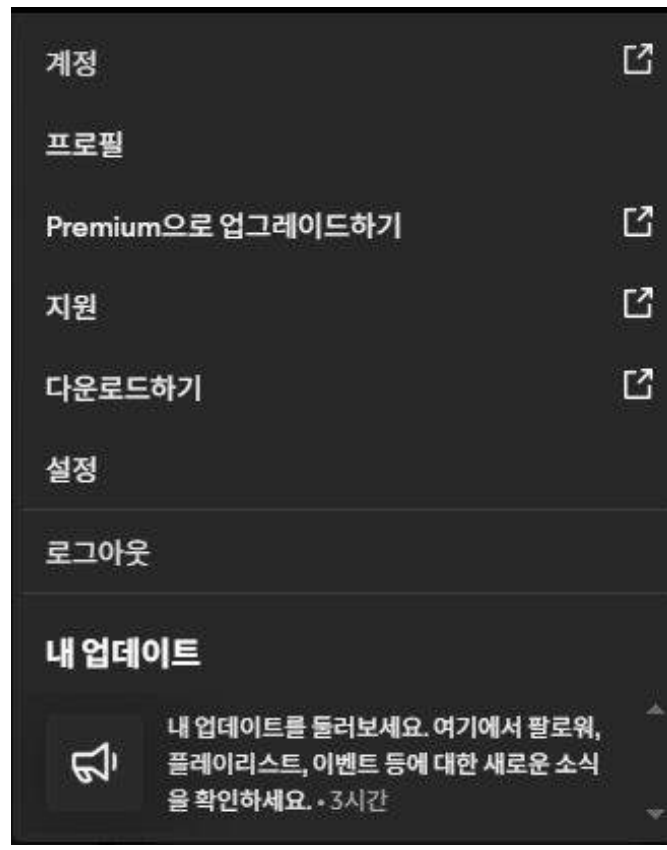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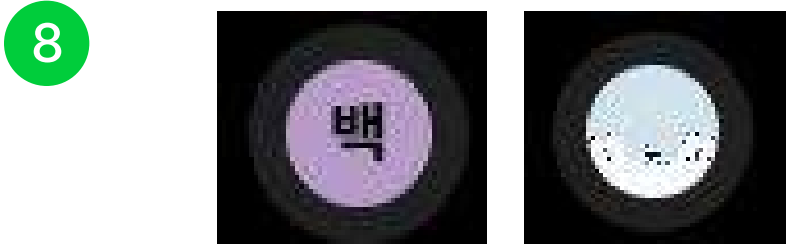
6 새 소식
 페이지의 새 안내사항이 있는 지 알려주는 UI.



클릭 시 페이지 이동이 아니라 가운데 주 영역이 덮이듯 바뀌는 형식으로, 가운데 필터 버튼이 존재한다. ('음악', '팟캐스트 및 프로그램')



친구 피드
 '사이트 내 친구들의 활동'이 뜨는 팝업이 뜨는 UI 쉽게 닫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나, 새 소식, 내 계정(프로필)과 같이 헤더에 있을 정도로 중요한 콘텐츠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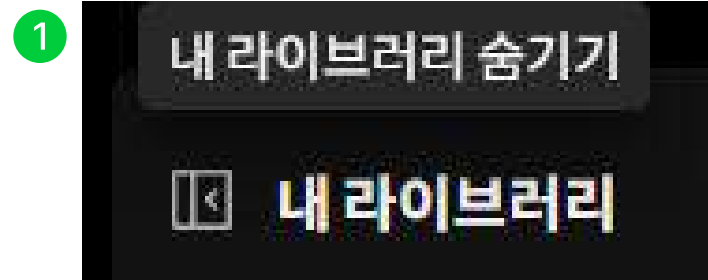
유저 공간
 프로필 사진을 설정하지 않으면 이름의 앞 글자, 프로필 사진을 설정하면 프로필 사진으로 뜨는 UI
 클릭 시 드롭다운이 발생하며, 안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계정, 프로필, Premium 업그레이드, 지원, 다운로드, 설정, 로그아웃, 새소식(내 업데이트)]
 프로필은 이름과 프로필 사진의 변경만 가능하고 홈 화면의 주 활동 구역만 바뀌는데 반해 계정은 페이지 이동이 이루어진다.
 '계정' 기능은 이용권, 결제 정보, 보안 등과 관련한 설정이 가능하다.
 페이지 이동 효과가 있는 항목의 경우 아이콘이 붙는다.

헤더 총평

버튼만 해도 9개, 기능으로 묶으면 8개의 UI가 존재하는 만큼, 다양한 기능이 존재한다. 다만 버튼의 개수가 많은 만큼 유사한 기능(로그 버튼 - 홈버튼 / 새 소식 - 친구 / 유저 공간 내 계정 - 프로필 등)을 가진 UI는 통합해도 좋지 않았을까 싶은 아쉬움이 있다.

UI 분석

사이드 네비게이션 - 왼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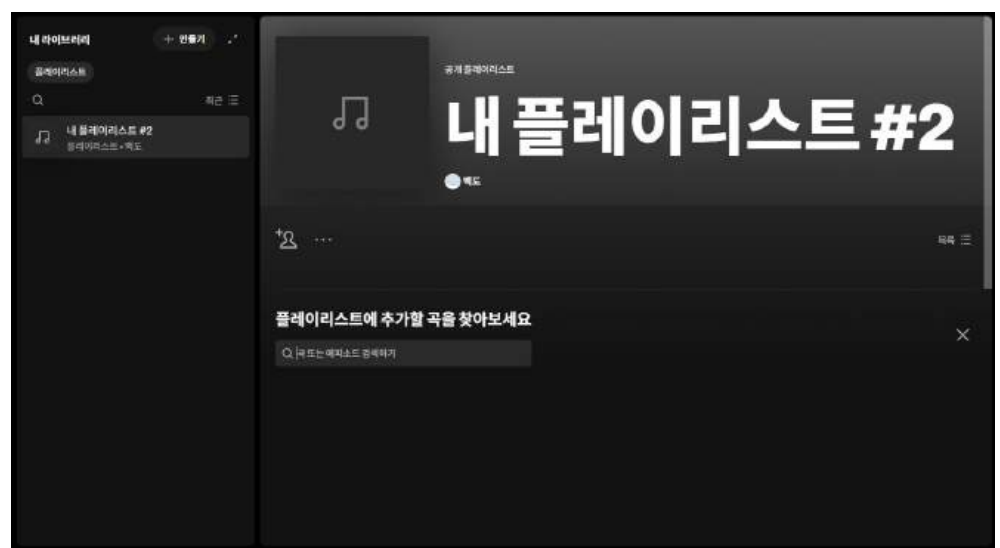


라이브러리(사이드) 숨기기 버튼
해당 사이드 구역에 마우스가 있다면 뜨는 버튼. 클릭 시 접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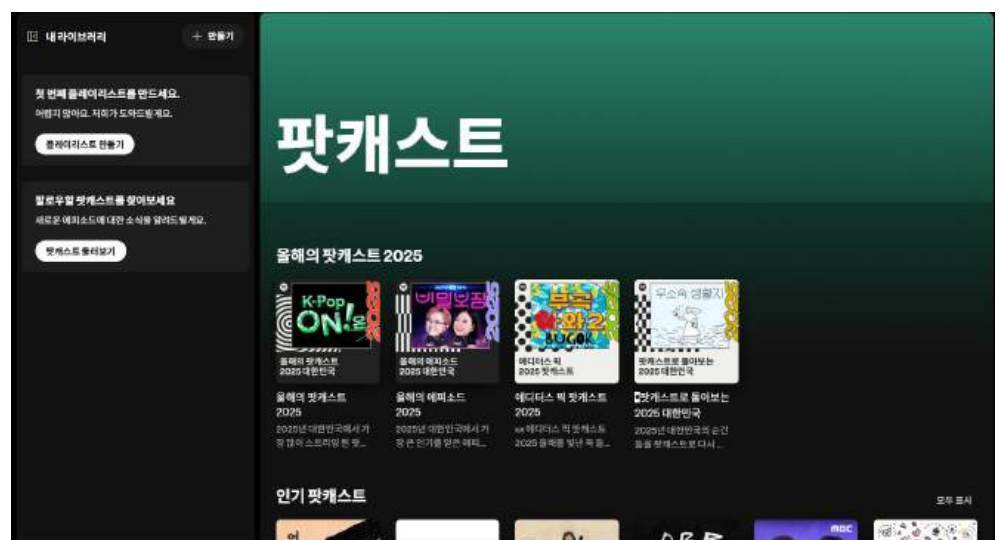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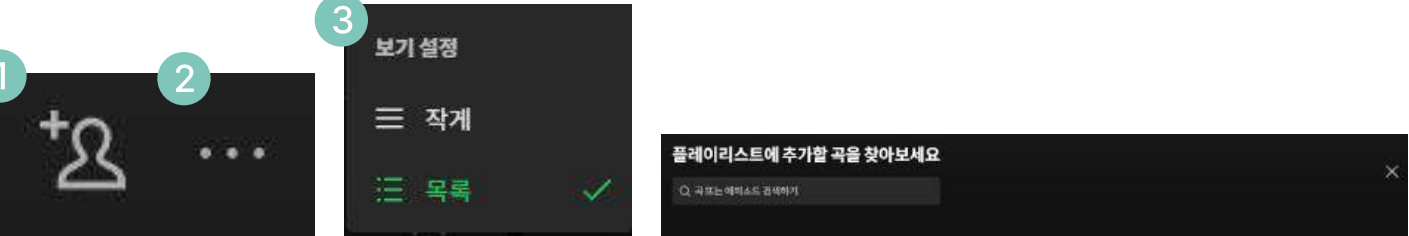


2 만들기 버튼
만들기 버튼 클릭시 더하기 아이콘이 닫기(X) 버튼으로 바뀌며, 새로운 창이 아래로 드롭다운된다.
목록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아이콘에 테마색이 추가되며 마우스가 가리키는 항목의 배경이 밝아진다.

플레이리스트와 폴더의 경우 3번과 비슷한 기능이며 블렌드의 경우 친구와의 그룹만들기 화면으로 바뀐다.



3 플레이리스트 만들기 버튼
클릭 시 바로 플레이리스트를 1개 생성하며 편집할 수 있게 되는 기능을 가졌다. 공동작업자를 추가하는 버튼, 기타 설정 버튼, 보기 설정 버튼, 곡 검색 및 추가 등 다양한 버튼과 기능이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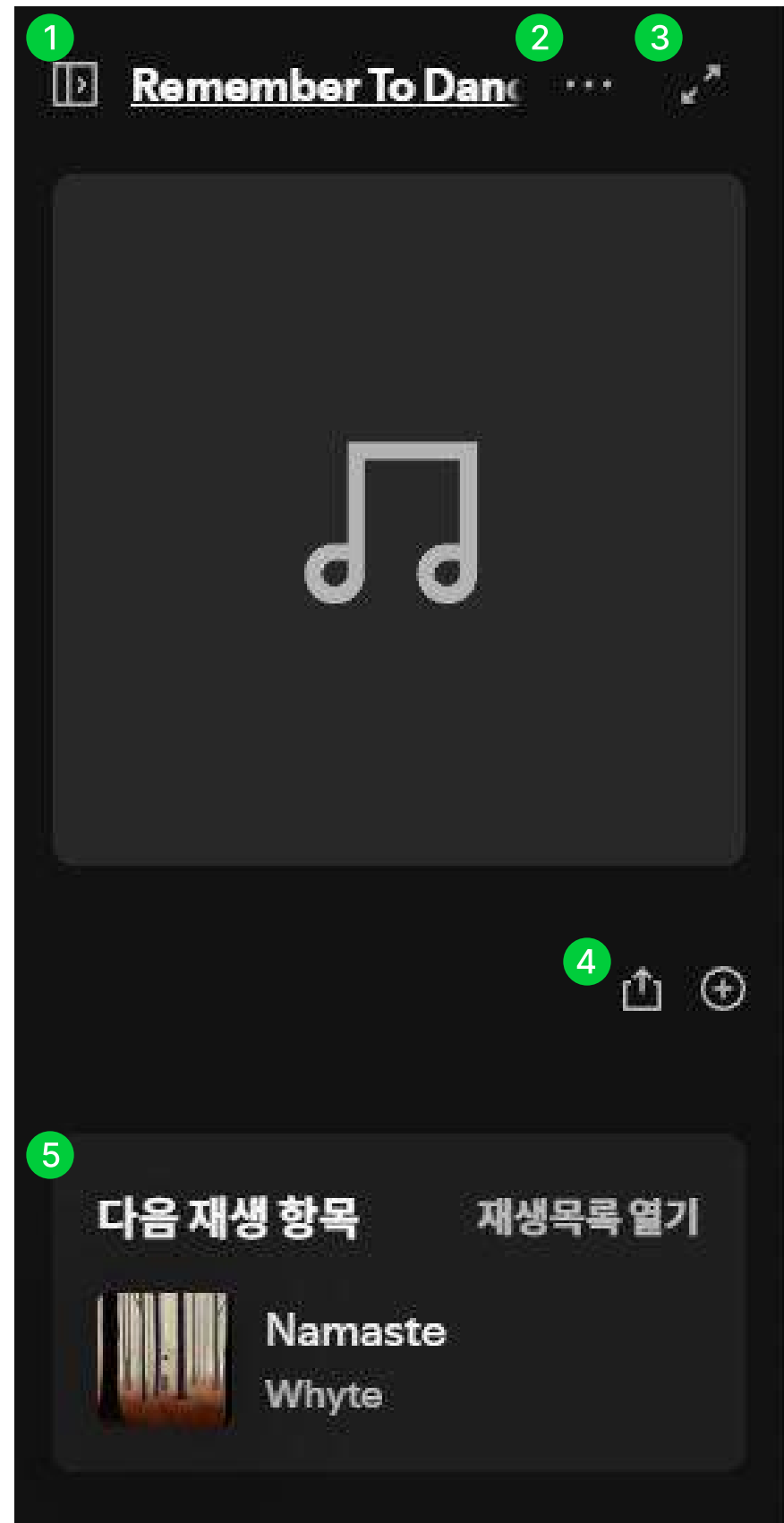


4 팟캐스트 둘러보기 버튼
클릭 시 메인 콘텐츠가 팟캐스트로 전환된다.
나가고 싶은 경우 홈 버튼을 누르는 방법밖에 없다는 점이 아쉽다.

UI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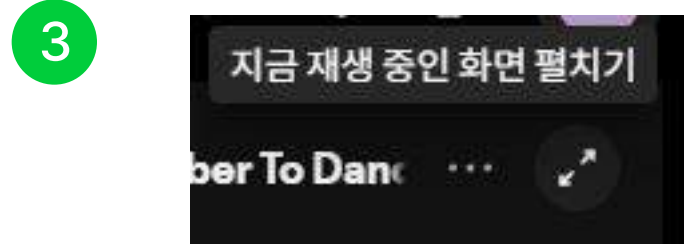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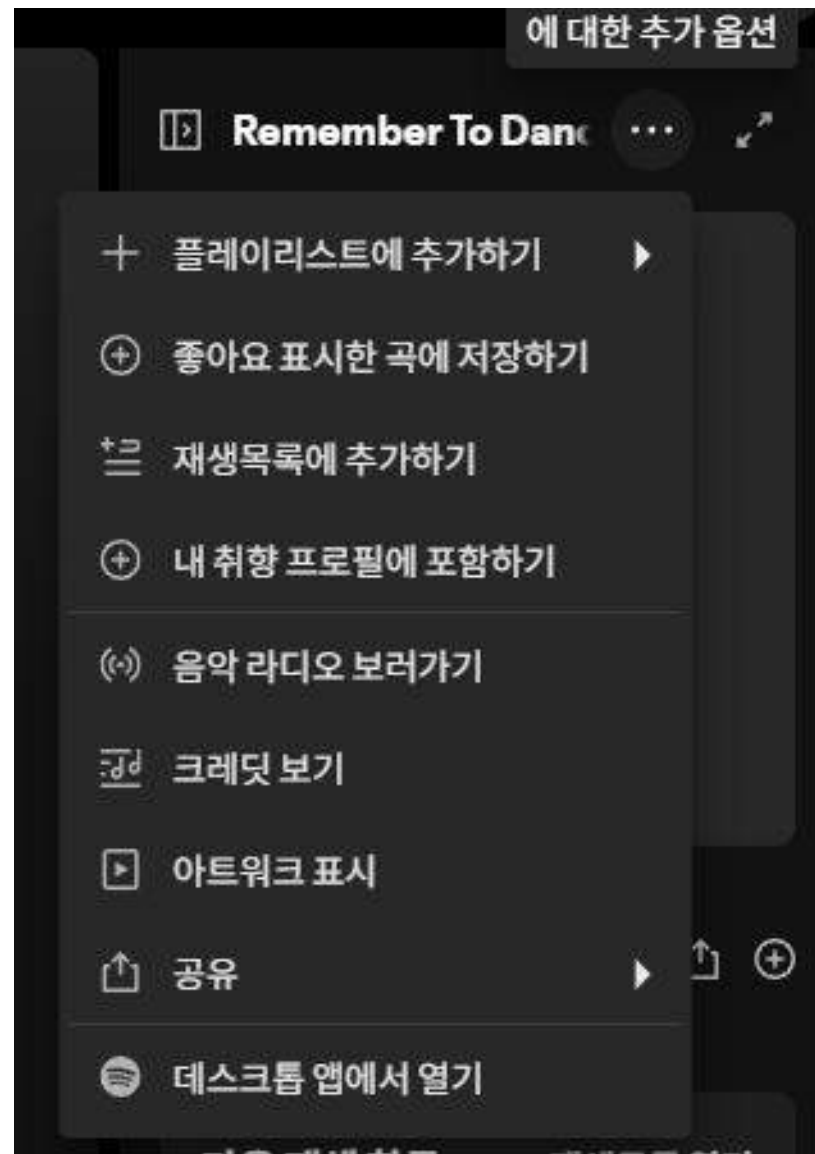
사이드 네비게이션 - 오른쪽

재생하고 있는 곡의 제목과 앨범 커버가 보이는 공간
스크롤 시 아티스트 / 작곡가 / 가수 등의 앨범 정보, 다음 재생 항목, 굿즈 등의 정보를 볼 수 있다.



1 라이브러리(사이드) 숨기기 버튼
왼쪽 분석때와 동일한 기능 및 조건을 가지고 있다.
(클릭 시 사이드 메뉴가 접혀 사라진다.)

2 추가 옵션 공간
해당 곡을 플레이 리스트, 프로필, 좋아요 목록 등에 넣거나 관련 콘텐츠를 찾을 수 있는 등 다양한 이용이 가능하다.



화면 펼치기 기능
화면이 곡 재생 기능으로 꽉 차게 되며, 화면에 표시되는 앨범의 형식을 바꾸거나(1), 화면 되돌리기 / 확대하기 등의 기능(2)을 이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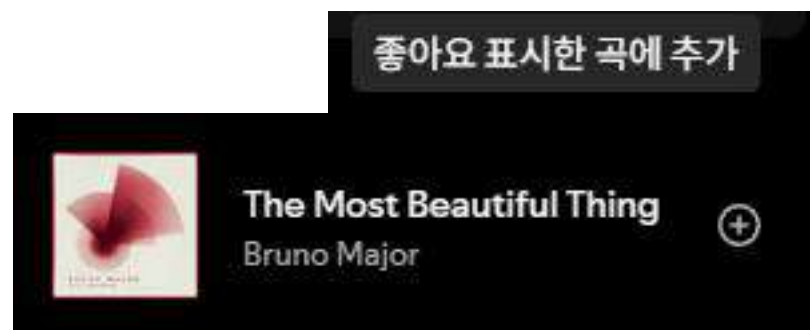


링크 복사 / 좋아요 표시 추가
마우스 오버 시 설명이 뜨며, 각각의 기능이 바로 실행된다.

5 다음 재생 항목 / 재생목록 열기
클릭 시 다음 곡으로 넘어가거나 재생목록이 열린다.
플레이리스트가 아닌 개별곡을 클릭해도 다음 재생 항목이 존재하는데, 지난번에 들은 곡이나 연관있는 곡으로 추정된다.



1



좋아요 표시한 곡에 추가

재생하고 있는 곡의 제목과 가수 이름 (혹은 그룹 이름) 이 보이는 공간 옆의 플러스 버튼 클릭시 좋아요 표시한 곡 (플레이 리스트)에 추가된다.

2



음악 플레이 UI

랜덤 재생 / 이전 곡 / 재생 - 멈춤 / 다음 곡 / 반복 설정 / 플레이 타이머 등 음악 재생과 관련된 표준화된 UI (마우스 오버 시 설명창이 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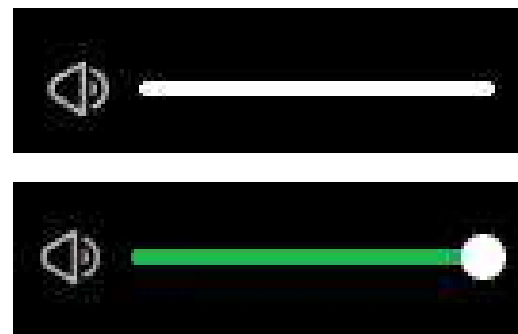
3



가사 / 재생목록 / 기기에 연결하기 버튼

곡과 관련된 메뉴로, 마우스 오버 시 설명이 뜨긴 하지만 아이콘이 직관적이지 않아 무슨 버튼인지 고민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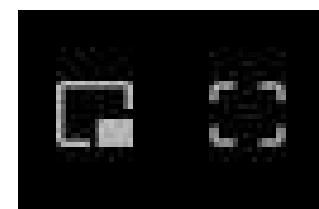
4



사운드 조절 버튼

스피커 아이콘 클릭 시 한번에 음소거가 되며, 마우스 오버 시 초록색으로 색이 변하며 원형 버튼이 떠 원하는 음량으로 쉽게 조정할 수 있다.

4



미니 플레이어 열기 / 전체 화면 전환

화면 제어 관련 버튼으로, 통상적인 아이콘을 사용해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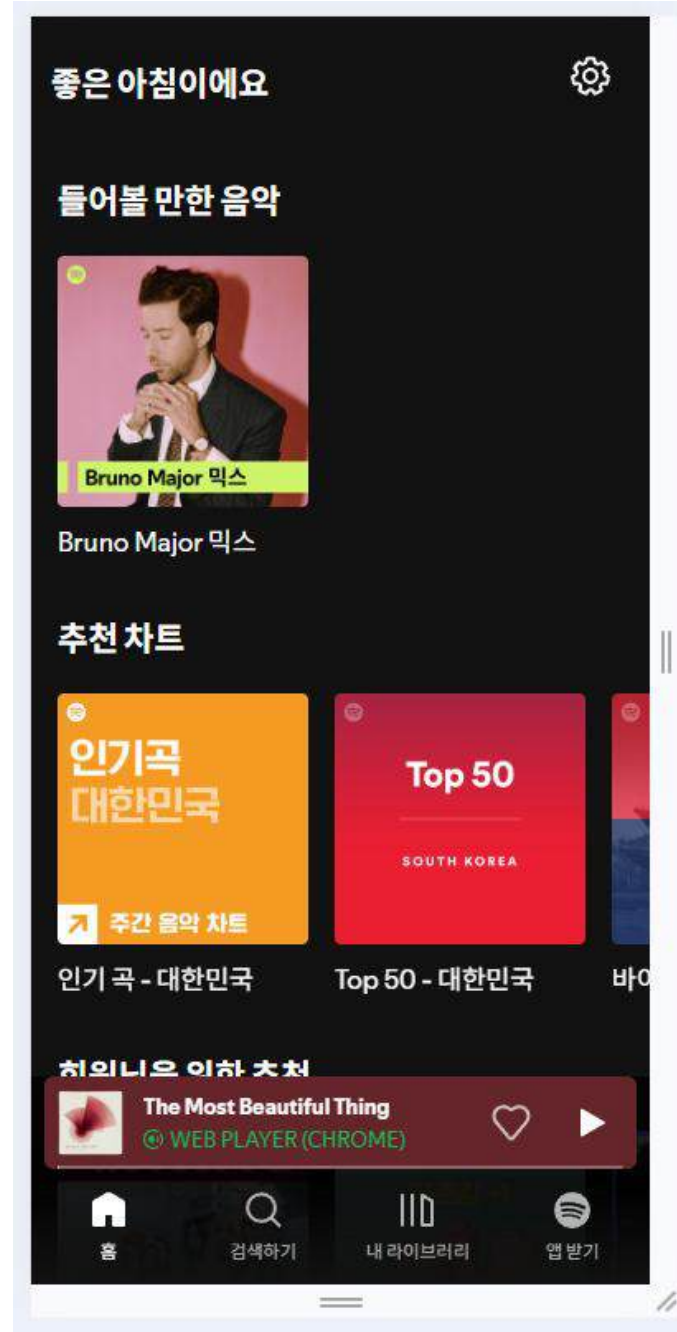
재생바 평가

통상적인 플레이 기능이 있다는 점과, 사용자에게 여러 기능을 제공한다는 점은 좋지만 아이콘이 우측에 집약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바로 쉽게 사용하기는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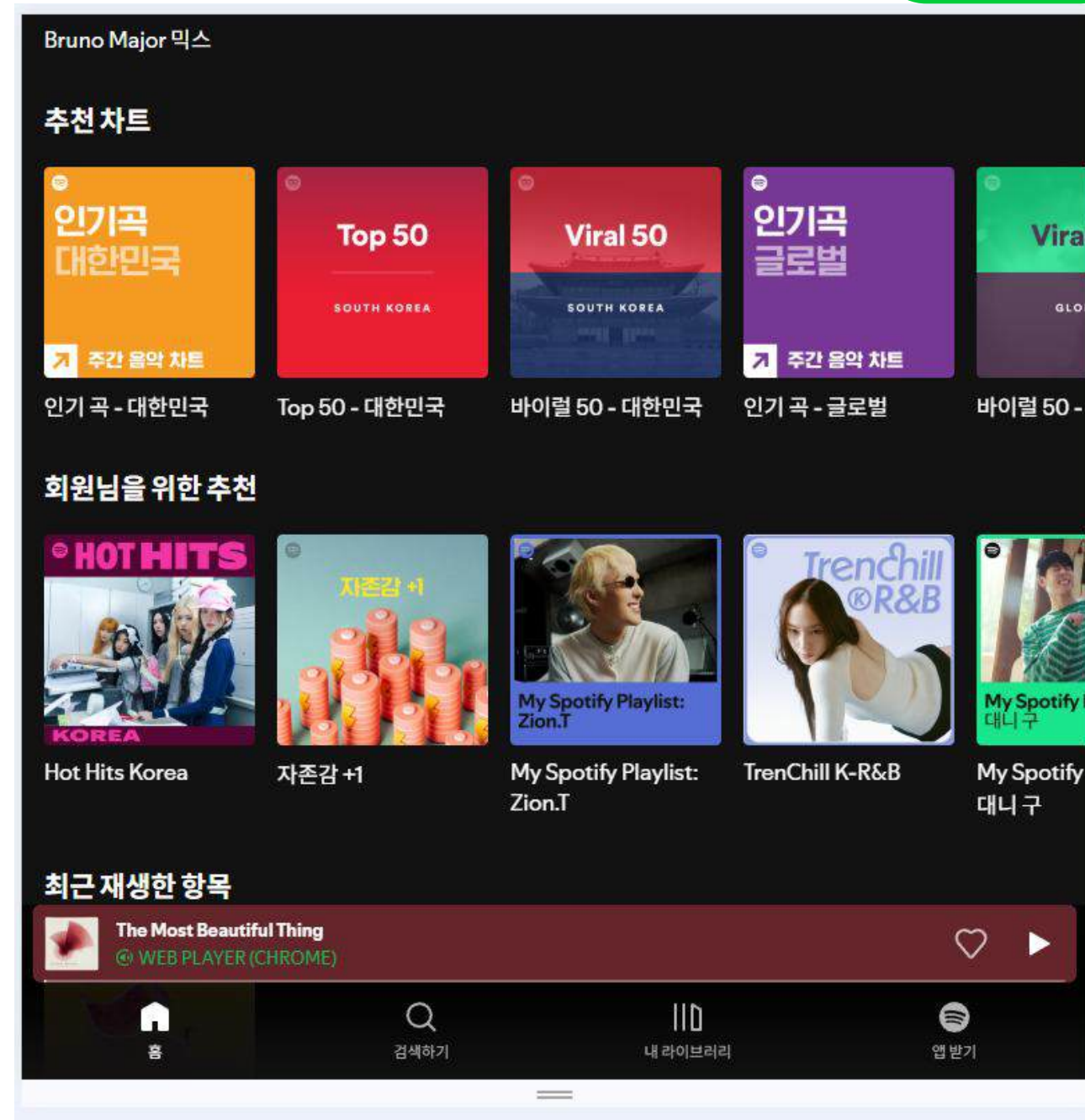
경쟁사 반응형 웹 분석

반응형 분석

Mobile



Tablet



분석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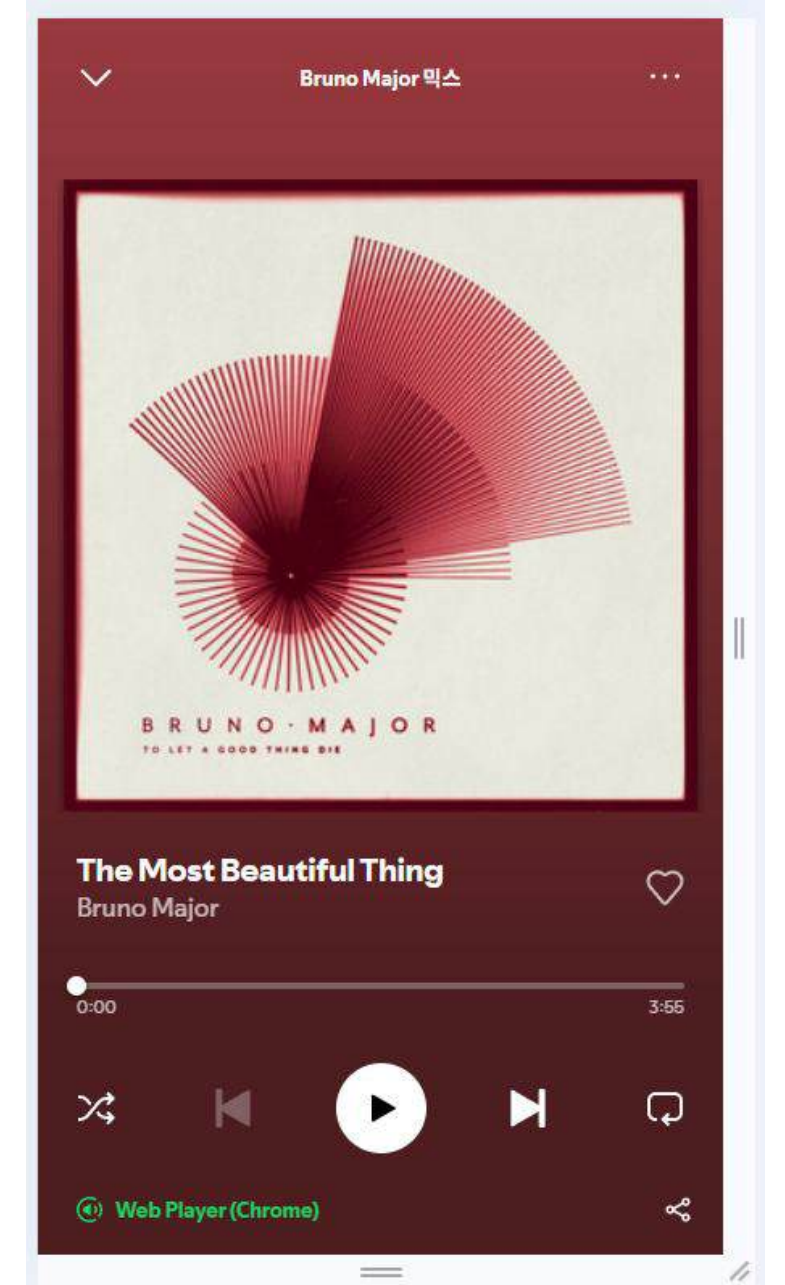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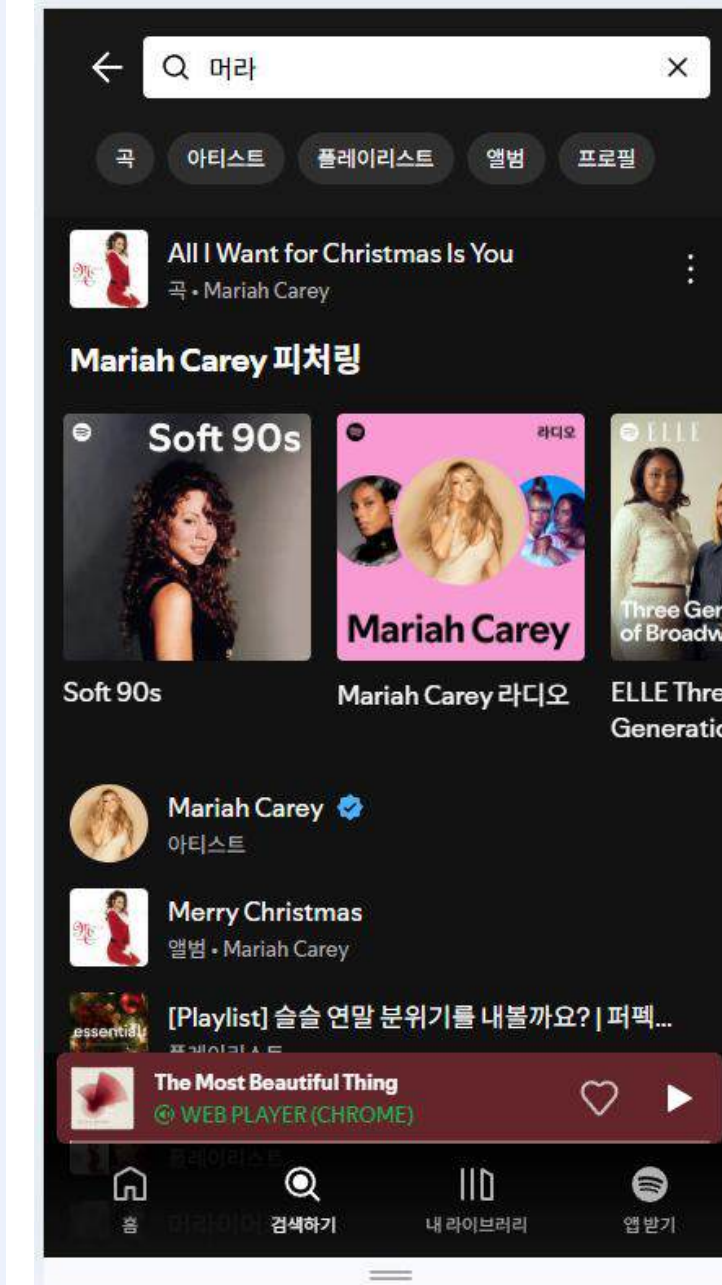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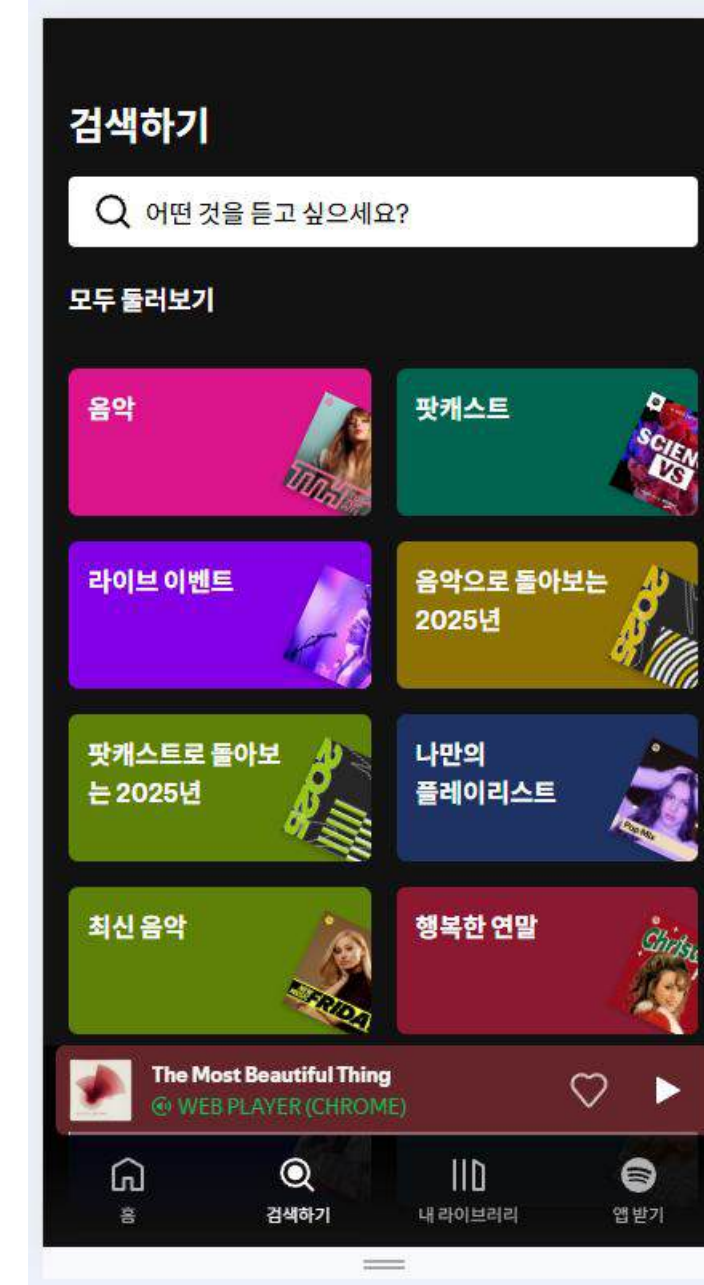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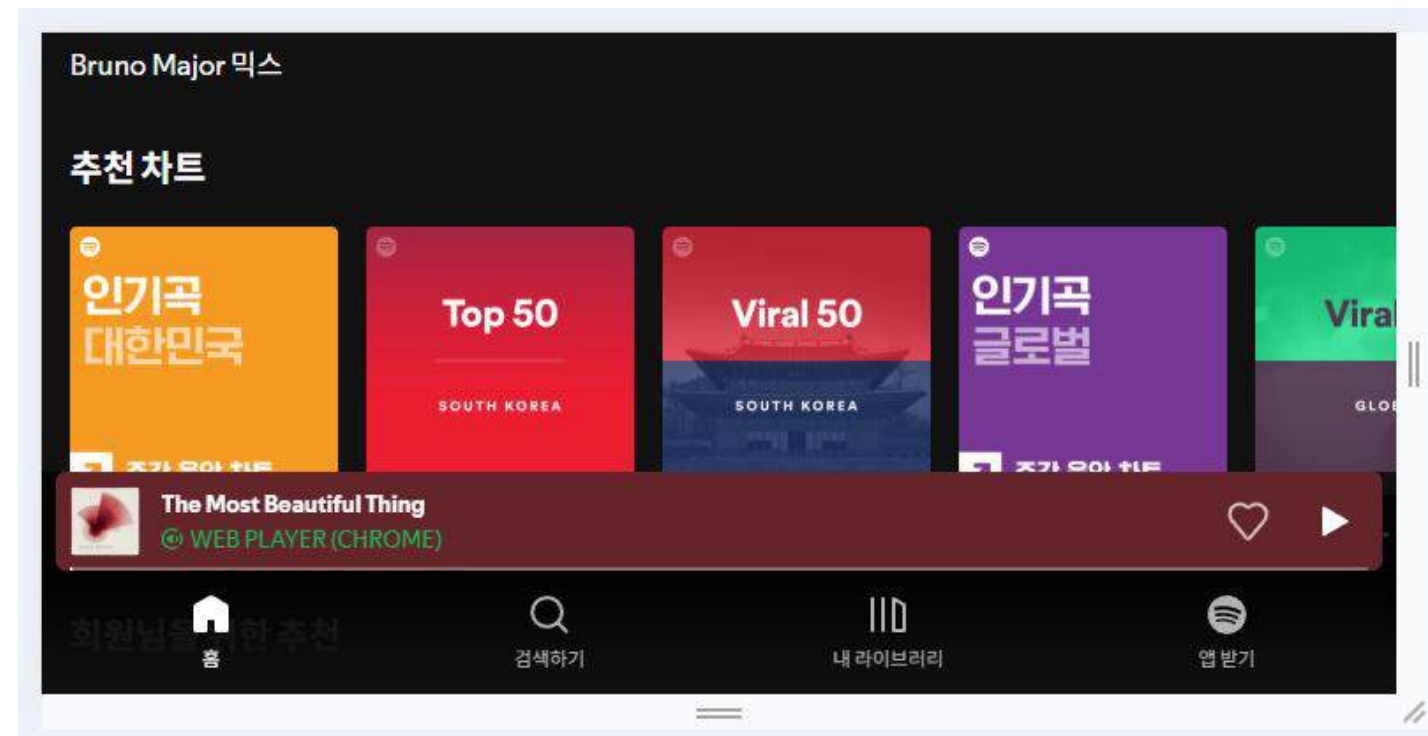
모바일과 태블릿 모두에게 적용가능한 반응형 사이트.
모바일의 경우 화면 회전(로테이트) 기능에도 반응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메뉴는 홈 - 검색하기 - 내 라이브러리 - 앱 받기 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헤더 (홈 / 검색하기)와 사이드 (라이브러리)에서 따온 것으로 보인다.


콘텐츠 구조나 UI가 PC 버전과 기능이 거의 같아 사용에 크게 어려움이 없다.

재생되고 있는 콘텐츠의 경우 PC 버전보다 단순화 되어 사용하기 편하다.


Rotate_Mobile




경쟁사 분석 (결론)



경쟁사 분석을 해보니 경쟁사들이 주로 차용하는 디자인 컨셉은 **#미니멀 #심플 #정돈된**같은 느낌이고 **콘텐츠와 기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자사 사이트 리뉴얼을 할 때 경쟁사와 같이 심플하고 미니멀한 느낌을 가지고 가면 어떨까요?




스트리밍 사이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플레이 리스트**가 아닐까요?
기능적인 면에서 꼭 추가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앨범 커버나 곡의 커버같은 부분이 K-POP콘텐츠에 맞게 화려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전체적인 콘텐츠 방향성이나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는 **가시성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트리밍 사이트 전체적으로 PC에서 **문의나 월정액 결제**같은걸 지원하고 있기때문에, 해당 부분도 중점으로 생각해야 할 것 같네요.



웹 플레이어같은 프로그램을 따로 설치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불편했어요. 유튜브뮤직이나 스포티파이처럼 **자체적으로 홈페이지 내에서** 제공하는게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주요 타겟은 20~30대 MZ세대일 것 같은데요, 배너나 메뉴 부분에서 **플로처럼 친근하게** 다가가는것도 좋겠습니다.
운동할 때 뭐 들을까? 득근! 처럼요.



경쟁사 분석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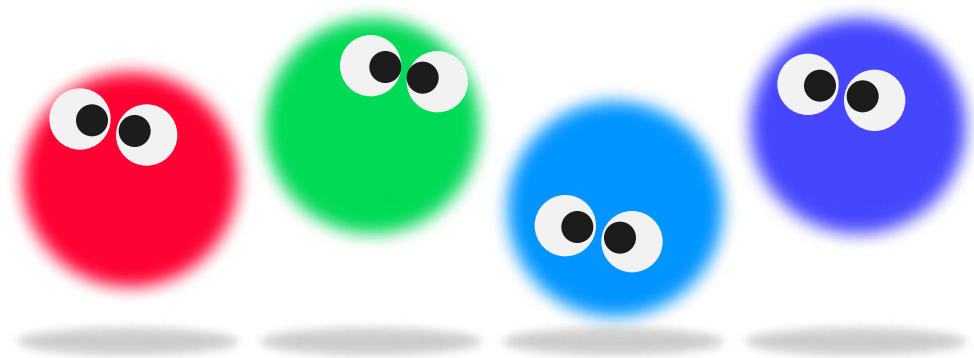
너무 많은 서브 메뉴는 오히려 갈피를 잃어 버리고 집중도도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꼭 필요한 메뉴를 제외 하고 **메뉴를 간소화**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그리고 각 메뉴의 이름들은 두루뭉실 하지 않고 **직관적** 이여야 사이트를 이용 할 때 헷갈리지 않고 이용자의 피로도도 줄이고 집중도도 올라 갈 것 같네요.

스트리밍 사이트의 주요 콘텐츠는 역시 인기차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기차트를 메인 페이지에서 가장 접근성이 좋은 중앙에 배치**를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경쟁사 분석과정에서 "이 사이트만의 차별화된 콘텐츠가 뭐가 있을까?" 를 고민해보았지만, 뚜렷한 강점으로 보일 만한 요소는 거의 없었어요. 따라서 저희는 리뉴얼을 할 때, 멜론만의 **독자적인 콘텐츠를 구성**해보는게 어떨까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웹인 만큼 각 **장르별 카테고리**를 세분화 하는 게 좋다 생각해요. 특정 세대가 좋아 하는 트로트나 매니아들이 많은 JPOP 같은 장르처럼 다양하게 나누는 건 어떨까요?

1. #미니멀 #심플 #정돈된 #깔끔한 느낌을 바탕으로 콘텐츠 가시성을 중점으로 생각할 것
2. 스트리밍 사이트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은 차트, 플레이리스트, 플레이어
3. 메뉴를 구성할 때에는 장르별 카테고리를 세분화 하되 직관적인 명칭이어야 할 것
4. 스트리밍 사이트는 비슷비슷하니까 독자적인 콘텐츠를 구성해보자!



자사 컨셉 도출

컨셉 키워드

#트렌디한

#깔끔한

#친숙한

#직관적인

#캐주얼한

Color System

#00CD3C

#8AC121

#F9F9F9

#EEEEEE

멜론은 브랜드 색상(#00CD3C)이 곧 아이덴티티일만큼 대중에게 강한 인상을 주고 있으므로 포인트 색상을 그대로 차용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미니멀한 무드를 위해, 밝은 그레이를 기반으로 버튼, 탭, 아이콘 등 페이지 구성에 필요한 부분에만 서브컬러를 적용 할 예정입니다.

Font System

Pretendard

SemiBold / Medium / Regular

36 28 24 18 16 12

36px, SB

28px, M

24px, R

18px, M

16px, R

12px, R

음악이 필요한 순간 Melon

음악이 필요한 순간 Melon

음악이 필요한 순간 Melon

음악이 필요한 순간 Melon

음악이 필요한 순간 Melon

음악이 필요한 순간 Melon

감사합니다!
노력하는 1팀이 되겠습니다.

